



최재원 요셉 | 배우

## | 걱정

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걱정입니다. 살기는 편해졌는데 살아가기가 어려워진 요즘 세상이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. 모두가 힘들고 경쟁적인 사회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일하고 받는 돈의 대가가 바로 스트레스에 대한 비용이라는 말도 공감이 갑니다.

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하더라도 걱정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도 우린 걱정에, 거기다 상상의 걱정까지도 하게 되지요.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그 상황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. 실제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훗날 생각해 보면 벌써 추억이 되어 버렸거나 ‘그땐 왜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했는지 몰라...’ 하는 생각을 하곤 하죠.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별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.

작년에 한 드라마에서 난생처음 검사 역할을 맡았습니다. 근데 역할이 부장검사에서 중앙지검장으로 나중엔 살인까지 저지르는 악역이라 여간 걱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러다 한 산문집에서 읽은 이 글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. 일본의 이큐라는 스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 승려들을 모아놓고 편지 한 통을 내놓으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.

‘걱정거리가 있을 때 이 편지를 열어보아라. 대신 작은 걱정거리로는 절대 열어봐서는 안 된다.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큰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그때 열어보아라.’

세월이 흐른 뒤 사찰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. 모두 머리를 맞대고 조아렸으나 그 걱정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

다. 제자들은 마침내 이큐 스님의 편지를 열어볼 때가 왔다고 판단하고 모두 모여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. 편지에 단 한마디가 적혀있었습니다.

“너무 걱정하지 마라. 어떻게든 된다.”(정호승, 「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」 중에서)

티베트 속담에 “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”라는 말이 있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. 두려워하지 마세요.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만 잘 붙들고 있다면 꼭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.

피할 길이 없을 때도 있다고요? 그렇다면 그 길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길일 겁니다. 그 또한 주님의 뜻일 거고요. 혹시 이 순간 ‘그럼 내가 그동안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았나?’ 하고 또 걱정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그건 바로 당신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.

복음  
묵상

행복하여라  
가난한 사람들  
하느님 나라가  
너희 것이다

루카 6.20

캘리그래피\_문영미 로사